▌이베로아메리카 제12권 1호 [2010. 6] : 55~86

파라과이 농촌의 세계화와 농민의 저항: '콩 전쟁(la guerra de la soja)'을 중심으로*

김 세 건**
(Kim, Se-Gun)

〈Abstract〉

La globalización del pueblo rural y la resistencia campesina en Paraguay: 'la guerra de la soja'

Después de la década 1990, la soja ha sido un agro-producto más importante en Paraguay. Pero la soja ha convertido el campo rural en la zona de la producción, es decir, la zona de sojización, para la exportación. Por otro lado, el campo rural se ha deteriorado por el aumento de la extensión del cultivo sojal. Los cultivos se extienden a lo largo de cientos de kilómetrios y afectan zonas muy cercanas a comunidades, colonias y otros asentamientos campesionos e indígenas, incluyendo escuelas, hogares, charcas familiares y comunitarias.

Los sojeros utilizaron los agrotóxicos que contaminaron la tierra, agua y alimentos. Aunque los campesinos no quieren vender sus tierras, no ven otras alternativas ante los graves problemas que conllevan las masivas fumigaciones. Ellos venden sus lotes y

* 이 연구는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하는 과제로 총 2년차 과제 중 2차년도 연구결과임(KRF-2006-323-B00024).

**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E-mail: amorsg@kangwon.ac.kr

migraron a ciudades. Se pierde la soberanía territorial, pues las tierras pasan a manos extranjeras, y la soberanía alimentaria, porque se desplaza la diversificación y los cultivos de subsistencia, expulsando a los campesions hacia las ciudades.

Ante el agravamiento de la situación causado por el incremento del cultivo de la soja, los campesinos empezaron a resistir, es decir, desarrollar 'la guerra de la soja' contra los sojeros y el gobierno paraguayo que no tenia refuerzos de resolver los problemas. Los campesinos formaron coordinadoras por la defensa de sus tierras y de su modo de vida contra los sojeros. Las luchas y movilizaciones reclaman no sólo un nuevo tipo de reforma agraria sino también la defensa de la soberanía económica, alimentaria y territorial, el derecho a producir con la propia semilla y a desarrollar técnicas agrícolas adecuadas de acuerdo con la economía campesina y el equilibrio del medio ambiente, el desarrollo de formas sociales de producción y la democratización en el medio rural.

[Key Words: Sojización de Paraguay/ Guerra de la Soja/ Soberanía Económica/ Alimentaria y Territorial]
[주제어: 파라과이 콩 생산기지화/ 콩전쟁/ 경제・식량・영토 주권]

Ⅰ. 들어가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라틴아메리카 저항의 단초는 농촌지역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하여 반-세계화 운동의 불길을 되살리며 새로운 사회운동의 지향점을 제공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멕시코 남부 치아빠스(Chiapas)의 라깐도나 밀림에

서 살고 있는 원주민·농민들이었다. 이른바 사빠띠스따(zapatista)라고 불리는 그들은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의 상징 가운데 하나였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되기 시작한 1994년 1월 1일 새벽에 '이제, 그만해!(Ya Basta!)'를 외치며 저항의 무기를 들었다. 또한 브라질의 대표적인 반세계화의 운동도 무토지농촌노동자에 의해 촉발되었다.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에서 벌어지고 농민들의 사회운동은 "1960년대 운동들의 단순한 재연이 아니다. 농민운동의 주체들은 도시영역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단순한 농업경작자가 아니며, 정치적으로는 정당들로부터 상당부분 자율적이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흡수된 많은 국가들의 중도좌파들이 방기된 정치적 공간을 채워내고 있다. 또한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종족적(ethnic), 성적, 생태적 관심들의 영향을 받고 있어, 라틴아메리카 여러 사회에서 보이듯이 농촌운동은 소수종족, 언어, 문화 등의 문제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농민운동들은 모두 라틴아메리카의 지역권적 조직인 라틴아메리카농민조직회의(Congreso Latinoamericano de Organizaciones del Campo, CLOC)에 결합되어 있으며, 최근 들어 더욱더, 비아 깜뻬시노(Vía Campesino)라고 불리는 국제적 기구에 활발히 참여하여 농촌투쟁들과 관련된 생각들과 경험들을 논의하고 있다(페트라스 1998, 143~146 참조)."

라틴아메리카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운동은 그 목적과 방향성이 매우 다양하고 차이도 많다. 이 점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하며 새로운 대안사회운동의 지향점을 제공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농민운동들인 멕시코 남부 치아빠스 사빠띠스따농민운동, 오아하까(Oaxaca)의 커피생산자들의 조합인 UCIRI(La Unión de Comunidades Indígenas de la Región de Istmo, 이스뜨모지역의 원주민공동체조합)의 공정무역운동, 브

라질의 무토지농촌노동자운동 등에서 잘 드러난다. 이처럼 중남미의 농촌은, 한편으로 근대화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과정에서 해체의 위기에 처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가장 강렬한 저항의 무대이자 대안공동체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곳이기도 하다(김세건 2008, 94). 라틴아메리카의 농촌은 위기와 희망이 중첩되는 공간으로 각 농촌이 처한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매우 상이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데, 파라과이에서는 농민들의 '콩 전쟁'(la guerra de la Soja)으로 나타났다.

파라과이는 대표적인 콩 재배국으로, 수출량 세계 3위, 재배량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파라과이 농민들은 기본 생계 작물인 콩이 외국자본에 의해 상업화됨으로써 식량주권은 물론이고 생존의 터전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파라과이 농촌이 처한 현실과 농민운동의 성격과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파라과이 콩 전쟁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농촌에서 옥수수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기본 생계작물 가운데 하나인 콩이 농촌을 신자유주의 세계화하는 핵심작물이 되고, 이것이 농촌사회를 어떻게 해체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농촌 세계화에서 브라질, 일본, 독일 등의 외국자본, 몬산토(Monsanto) 등과 같은 종자회사 등의 역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라틴아메리카 농촌의 세계화는 생산 작물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을 둘러싼 외국자본, 종자회사, 정부 등의 정치경제적 관계의 문제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다음으로 콩의 상업화로 인해 파라과이 농촌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파괴, 토지강탈, 농민 생존권 위협 등의 구체적 실상을 드러낸다. 이에 대한 파라과이 농민들의 저항과 연대과정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토지 주권 회복, 농촌공동체 회복 등으로 대표되는 파라과이 농민들의 주장과 이념에 대한 고찰을 통해 파라과이를 비

롯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콩 전쟁의 의미와 새로운 농민운동의 가능성을 전망해본다.

Ⅱ. 파라과이 지역 개관

파라과이는 지리적으로 남아메리카 대륙의 남쪽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남아메리카의 심장부라 불린다. 파라과이는 동쪽에 브라질, 서쪽과 남쪽에 아르헨티나, 북쪽의 볼리비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내륙국이다. 현재 파라과이의 입지환경은 1865년에서 1870년까지 5년간 있었던 삼국동맹전쟁(Guerra de la Triple Alianza)과 1932년 볼리비아와 있었던 차꼬전쟁(Guerra del Chaco)의 결과이다. 특히 파라과이 사람들이 '큰 전쟁'이라고 부르는 삼국동맹전쟁은 파라과이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었다(구경모 2008, 39 참조). 브라질 · 아르헨티나 · 우루과이 등 삼국과 벌인 전쟁에서 파라과이는 처참하게 패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파라과이 인구는 전쟁 전 인구의 1/6~1/10 정도의 수준으로 줄었고, 특히 성인 남성들의 피해가 컸다.[1] 대학살이라고 할 정도의 피해를 낳은 '큰 전쟁'은 오늘날까지도 파라과이의 정치경제, 사회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쟁 이후 주변의 삼국,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파라과이의 정치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파라과이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약 800km에 걸쳐 국토를 종단하여 파라나(Paraná) 강으로 흘러드는 파라과이 강을 경계로 차꼬라고 부르는

1) 아르헨티나 출신의 인류학자인 아레야노(Arellano)는 파라과이 인구가 전쟁 직전에 비해 약 10분의 1정도만 남았다고 하였다. 그녀는 전체 생존자수가 221,349명이며, 그 가운데 아이들이 86,079명이며, 여성이 106,524명, 남성이 28,746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이들을 제외한 남 · 녀 성비는 약 1:4로, 성비 불균형이 매우 심했음을 알 수 있다(구경모 2008, 40 참조).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으로 나뉜다. 두 지역은 지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차이가 많다(강석영 1999, 276; 강혜정 2005, 2~3; 구경모 2008, 24 참조).

파라과이 강과 필코마요(Pilcomayo) 강 사이의 서부의 차꼬 지역은 국토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차꼬 지역은 해발 200m의 평원이지만 비가 불규칙하게 내려 건조한 초원의 불모지이다. 이 지역은 천연자원, 특히 석유의 매장으로 개발이 기대되기는 하지만, 기후 여건으로 농·목축업은 동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행해지지 않는다. 서부지역은 반세기 전 스뜨로에스네르(Stroessner) 정부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 유럽에서 이주한 러시아와 독일계 메노나이트들에 의해 개척되었다. 이들은 파라과이에서 처음으로 낙농사업을 도입하여 발전시켰다. 서부지역은 인구밀도가 파라과이 동부 지역에 비해 매우 낮아 3개의 주(州)로 구성되어 있다.

파라과이 강과 파라나 강 사이의 동부지역은 국토의 약 40%를 차지하며 해발 80~800m의 완만한 구릉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곳에는 800개의 강과 하천, 저습지 그리고 울창한 열대 삼림이 있다. 남동부 지역은 강수량이 풍부(연 1,700mm)하고 토양도 비옥하여 농·목축업이 발달하였다. 파라과이 전체인구의 90% 이상이 이 지역에 살고 있고, 인구밀도가 높아 총 14개 주가 자리를 잡고 있다. 스페인 식민지 시기부터 지금까지 아순시온(Asunsión) 주요 도시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파라과이 동부지역에 위치해 있어, 파라과이 역사, 정치경제, 사회문화는 모두 동부지역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콩 전쟁도 바로 동부지역에 위치한 까닌데쥬(Canindeyu), 까아과수(Caaguazú), 까아사빠(Caazapá), 미시오네스(Misiones), 이따뿌아(Itapúa), 알또빠라나(Alto Paraná) 등의 주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파라과이 국토면적은 4,068만 헥타르인데, 이 가운데 경지면적은 8%,

목초지는 약 53%를 차지하고 있다(2002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 가운데 관개 수리 시설이 된 면적은 2% 수준에 불과하여 농업하부구조가 낙후되어 있다. 파라과이는 전체 인구의 39% 이상이 농업부분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가인구 당 경지면적은 1.4ha 미만이다(강혜정 2005, 1). 파라과이의 주요 농산물은 대두, 옥수수, 쇠고기, 참깨, 밀, 목화 등이다. 특히 파라과이는 세계 6위의 대두 생산량 규모를 가지고 있고, 또한 세계 4위의 대두 수출국으로 파라과이 경제에서 콩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그렇지만 콩은 파라과이 농촌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하게 하는데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파라과이의 '콩 전쟁'이 시작되었다.

Ⅲ. 농촌의 현실과 콩 전쟁의 배경

1. 농업 수출 정책과 토지집중

파라과이에서 농업수출정책은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1876년 '큰 전쟁', 이른바 삼국동맹전쟁 이후, 폐허가 된 파라과이에 남은 것은 오직 농업뿐이었다. 따라서 농업은 자연스럽게 파라과이 산업의 기반이 되었고, 농촌의 문제는 곧 파라과이 전체의 문제가 되었다. 이때부터 따니노(tanino), 마떼(yerba mate), 목화(algodón), 대두 등의 농산품 수출이 파라과이 경제를 이끌어왔다. 특히 콩은 1990년대 이후 가장 중요한 수출품이 되었다. 이때부터 파라과이 농촌에서 토지집중과 자급자족적 생계농업의 기반의 해체 등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콩 생산과 수출을 주도한 사람들은 외국자본의 대농장주들이었고, 특히 "브라지과요(brasiguayo)"라고 불리는 브라질 출신 농장주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브라질 사람들의 파라과이로의 이주는 브라질의 근대화가 본격화되던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1970년대와 1980년대 중반에 정점에 이르렀다. 파라과이, 특히 까닌데주와 알또 빠라나주로 이주하였던 브라질 이민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은 브라질 근대화 과정에서 밀려난 브라질 북부, 북동부의 힘없는 소작농이었다. 이들은 파라과이에서 소작농, 농촌노동자로 생활을 하였다. 두 번째 부류는 브라질 파라나(Paraná) 주, 리오그란데두술(Río Grande do Sul) 주, 산따 까따리나(Santa Catarina) 주 출신의 사람들로, 이들 대부분은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등에서 이주한 유럽계였다. 이들은 어느 정도 자본을 가진 소농, 중농, 기업농으로 스트로에스네르 정부의 지원 아래 빠르게 부를 축적하며 브라질과 접한 파라과이 국경 지역에서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였다(Riquelme 2005, 124). 이들 가운데 일부는 1990년대 후반에 들어 그들의 지배력을 브라질-파라과이 접경지역을 넘어 까아과수, 까아사빠, 미시오네스, 산 뻬드로 등과 같은 파라과이 내부지역으로 확대하였다. 이들이 파라과이 농촌의 토지와 생산을 점유하면서부터 이전까지 주요 농업 생산품이자 수출품으로 파라과이 중소농민이 주로 종사하였던 목화 생산은 감소하였다. 예로 2003년 목화 재배지는 1995년에 비해 약 20% 감소하였고, 생산량은 약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목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농민들의 생산 활동은 위축되었고, 농민들의 생활도 점차 어려워졌다. 또한 농촌의 토지소유 구조에 있어서도 점차 대농장주를 중심으로 토지가 집중되었다.

바로 농촌의 문제는 농업수출정책 그 자체보다는 그와 함께 심화된 토지 소유의 불균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 1991년 농업센서스[2]에 따르면, 파라과이에는 약 300,000 명의 농업가구가 있다. 이 가운데 3만

2) 1991년 이후로 농업센서스가 실시되지 않았다(Palau y Kretschmer 2004, 115).

명(10%)은 대농, 4만 8천명(16%)은 중농, 2만 6천명(9%)은 중·소농, 16만 명(53%)은 소농 그리고 3만 6천명(12%)은 빈농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대농 10%가 농토의 약 91.3%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단지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1%만이 1천 헥타르가 넘는 대규모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소유한 토지가 전체 경지 면적의 82%에 이르렀다. 반면 15~20만에 이르는 농업 가구는 아무런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Palau y Kretschmer 2004, 109~110). 특히 1999년부터 유전자 조작 콩의 재배가 본격화 되어 농업수출의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면서 대두 면적을 늘리고자 토지를 사는 데 적극적이었던 외국인 대농장주들의 토지 소유 면적은 더욱 높아졌다.

파라과이 농촌에서 토지 소유에 있어서의 불균형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그러나 스페인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한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토지개혁이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고, 오히려 소수에 의한 토지의 독점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다. 사실 파라과이에서 토지는 경제적 권력 나아가 정치적 권력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다. 따라서 지배층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토지에 대한 지배력을 끊임없이 높이려고 하였다.

파라과이를 수 십 년간 지배하였던 스트로에스네르(Stroessner) 정부는 1970년대부터 농업근대화 정책을 통해 농업을 부흥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농기계 도입, 종자개량, 농약 사용, 단작화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녹색혁명은 농촌을 발전시키기보다는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오히려 토지는 소수의 농업자본가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수출을 목표로 한 면화와 콩 등 단작작물의 대량 생산은 오랫동안 지역에 적응을 해 온 종(種)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생계농업을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농촌은 피폐해지고, 농민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

1989년 스트로에스네르의 독재가 끝나면서 토지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그렇지만 그것은 헛된 기대일 뿐이었다. 오히려 농업수출정책이 강화되면서 소수에 의한 토지의 집중은 더욱더 심화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파라과이 정부는 세계 농업의 분업구조에서 목축과 콩 수출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농촌에 누적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목축과 콩 등 농산물을 많이 수출 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었다. 예로 2003년에 들어선 니까로르 두아르떼 프루또스(NIcanor Duarte Frutos) 정부의 정책은 목축과 콩과 같은 농산품 수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은 브라질 대농장주들의 유입을 촉진시켰다. 파라과이와 브라질 국경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브라질 시민권을 가지고 파라과이에 거주하는 브라지과요는 약 5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로드리게스 2009, 354 참조). 브라질인들은 세계 4위 콩 수출국인 파라과이에서 전체 콩 생산량의 98%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는 파라과이 국내총생산량(GDP)의 3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www.deleste.net, 파라과이뉴스 2008.6.4.) 그렇지만 파라과이 재무부가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대농장주들의 과세부담율은 전체 세수의 4% 밖에 되지 않는다. 담세율이 11.6%로 아주 낮은 파라과이에서 지나친 면세와 특권을 누리는 이들은 다른 분야의 사업가들이 내는 세금의 절반도 내지 않는다(로드리게스 2009, 353 참조). 결국 정부의 변함없는 농업수출 정책은 소수의 대농장주들에게 혜택과 이익이 집중되었고, 농촌이 안고 있는 토지문제, 식량문제, 빈곤문제 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켰다.

2. 대두 생산기지화와 농촌 해체

(1) 콩 생산의 확대와 빈곤의 심화

파라과이에서 콩 재배는 기본적으로 브라질의 기술, 자본과 결합되면서 발전하였다. 1970년대에 브라질 남부의 콩 농장주들이 까닌데주, 알또 빠라나, 이따뿌아 등의 파라과이 접경지역으로 경작지를 확대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파라과이 정부의 지원 아래 목축지, 인근 산의 휴경지뿐만 아니라 원주민·농민 소유의 토지 및 생활터전까지도 콩 경작지로 편입시켰다. 이런 변화는 1990년대 후반부터 더욱 빨라졌다. 이 점은 연간 대두 재배면적과 생산량의 변화에서 잘 드러난다.

〈표 1〉 연간 대두 재배면적과 생산량

	1995/6	1996/7	1997/8	1998/9	1999/00	2000/0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면적(ha)	833,005	939,852	1,005,043	1,185,748	1,176,460	1,350,000	1,445,385	1,474,058	1,870,000	1,950,000
생산량(t)	2,394,784	2,670,003	2,855,742	3,053,005	2,980,058	3,511,048	3,300,000	4,204,865	3,583,000	4,400,000

출처〉 Moríngo(2004; Palau Viladesau 2005, 46 재인용)

1995년에 8십만 헥타르에 불과하던 콩 재배지는 2004년에 약 2백만 헥타르에 이르렀다. 파라과이에서 콩 생산은 브라질 접경의 알또 빠라나, 이따뿌아, 까닌데주, 미션스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알또 빠라나(530,000has.), 이따뿌아(356,000has.), 까닌데주(238,000has.)는 콩 생산 중심지로, 2000/01년도에 3개 주의 콩 경작면적은 파라과이 전체 콩 경작면적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까닌데주 주의 경우 1996년 콩 경작면적은 84,113has.였는데, 2001년 238,000 has.로 급증하였다(Souchaud 2005, 19 참조). 1999년~2000년에 유전자 조작 콩의 재배가 시작되면서 콩 재배 면적의 증가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해마다 10만 헥타르 정도 증가하던 콩 재배면적이 2000년대에 들어 빠르게 늘고 있다. 콩 전쟁이

본격화되었던 2003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약 43만 헥타르가 콩 경작지로 바뀌었다. 2004/05년 콩 생산면적은 약 2백만 헥타르로 파라과이 전체경작면적의 절반을 훨씬 넘고 있다. 콩 생산량에 있어서도 1995년 2백3만 톤이던 콩 생산량은 2004년 4백4만 톤으로 크게 늘어났다.

문제는 콩 생산을 위한 토지집중이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것으로 농민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브라질, 일본, 독일 등 외국 자본의 대농장주들은 대두 재배지를 확대하면서 농민의 생계를 위한 경작지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거지마저도 존중하지 않았고, 오히려 농민들을 토지로부터 분리·축출하였다. 외견상 대농장주들은 헥타르당 500~1,700 달러(미화)를 주고 구입을 하였다. 소유 등기 또는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돈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등기가 없는 경우는 문제가 달라졌다. 즉 이들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했다. 현실적으로는 농민들은 농장주의 외압에 의해 토지를 팔수밖에 없었다. 만약 농민들이 토지를 팔지 않고 저항을 한다면 농장주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농민들을 축출하였다. 예로 대농장주들은 저항을 하는 농민의 경작지 또는 거주지의 주변 토지를 구입하였다. 그리고 농약을 대량으로 살포하여 농민들을 압박하였다. 한마디로 농약이 농민들을 축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결국 농약이 일으키는 심각한 생활환경의 오염과 대농장주의 위협 앞에서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고 마을을 떠나야 했다. 그리고 점차 토지는 소수의 외국 대농장주, 특히 브라질 대농장주들에게 집중이 되었다.[3)]

따라고 콩 생산면적과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것이 농민들의 삶

3) 빈농 시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호세 레데스마 산페드로 주지사 당선자는 당시 "10만 여명의 브라질인들이 파라과이-브라질 접경지역에 5만ha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대다수 파라과이 농민들이 농지를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www.deleste.net, 파라과이뉴스2008.6.4.).

의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콩 생산면적의 증가에 비례하여 빈곤층 농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물론 증가한 콩 생산면적이 모두 농민들의 경작지라고 할 수 없다. 여기에는 목축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최소 10만 헥타르는 농민들의 생계작물을 위한 경작지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가구 가운데 1만 가구, 약 7만 명의 농민이 자신의 농토를 잃고 농촌을 떠났다(Palau y Kretschmer 2004, 107). 또한 생계작물의 경작하기 위한 토지를 상실한 농민들은 식량의 자급자족이 어려워졌다. 이런 결과로 파라과이 농민은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 점은 빈곤층의 변화에서 잘 드러난다.

〈표 2〉 연도별 빈곤층의 변화 (단위: 년, %)

구 분		1995	1997/98	1999	2000/01	2002
도시	최빈층	6.8	7.3	6.1	7.1	14.6
	빈곤층	16.9	15.9	20.6	20.5	28.6
	소계	23.7	23.1	26.7	27.6	43.2
농촌	최빈층	21.4	28.9	26.5	25.6	31.1
	빈곤층	15.8	13.7	15.4	15.7	19.4
	소계	37.2	42.5	42.0	41.2	50.5

출처〉 Fogel(2005, 56)

표 1과 2를 비교해보면 콩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빈곤층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2002년 농촌의 빈곤층 비율은 50%를 넘어서고 있다. 대농장주 중심으로 한 수출지향의 콩 산업의 성장은 농민의 삶에만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의 삶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 도시에서도 빈곤층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콩 산업은 농촌과 도시를 가리지 않고 파라과이 사람들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4)]

(2) 콩의 유전자 조작과 환경의 오염

콩, 특히 유전자 조작의 콩 경작지의 확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유전자 조작의 콩은 현실적으로 경작비용을 상당 부분 줄인다. 다시 말해 유전자 조작 콩을 경작하면 생산비를 톤당 50불(미화)을 줄일 수 있어 1헥타르당 미화 500불 정도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다(Fogel 2005, 38). 따라서 콩 경작자들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전자 조작 콩을 받아들여 경작지를 확대하였다. 콩 재배가 빠르게 늘어나고 제초제, 제충제 등 농약이 대량으로 살포되면서 유일하게 남은 파라과이 동부지역의 숲이 무참히 파괴하였다. 이 지역에서 수 천 년 동안 살아 온 과라니(Guaraní) 원주민들의 삶도 위기에 처하였다. 더욱이 많은 양의 제초제와 살충제 등의 농약 사용이 요구되는 유전자 조작에 의한 개량종 콩이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재배되면서 토질악화와 환경오염이 심화되었다.

예로 파라과이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는 콩 종자는 세계 최대의 다국적 종자 생산회사인 몬산토가 개발한 라운드업 레디(Roundup Ready, 이하 RR)이다. 종자 RR은 몬산토가 생산하는 제초제 라운드업(Roundup)에 대하여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 콩 RR을 파종하면, 자연스럽게 제초제 라운드업을 사용해야만 기대한 생산량을 수확할 수 있다. 대신 제초제 라운드업을 뿌리면 잡초와 이 제초제에 저항력이 없는 작물은 말라 죽게 된다(Bioptimistas 2005, 2 참조). 따라서 제초제 라운드업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지역에서 RR이 아닌 다른 종의 콩 또는 옥수수 등의 작물을 파종한다는 것은 수확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농약, 특히 특정 농약을 사용해야만 생산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농

4) 2004년 CEPAL의 자료에 바탕을 둔 2002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빈곤 순위에서 파라과이는 온두라스(77.3%), 니카라과(69.4%), 볼리비아(62.5%)에 이어 4번째로, 파라과이 전체 인구의 61.0%가 빈곤층이다(Damián & Boltvinik 2008, 206 참조).

약의 사용은 급증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농약에 대한 잡초와 벌레의 면역력이 높아져 제초와 제충을 위해서는 전에 사용했던 농약보다 더욱더 강한 독성을 지닌 농약을 살포해야 한다. 그런데 농약 살포가 일으키는 오염은 경작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콩 경작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초제 RR는 POEA(el surfactante polioxietileno-amina), 글리포사토의 유기산(acidos organicos de glifosato), 이소쁘로삘라미나(isopropilamina)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POEA는 다른 성분보다 3~5배 정도 높은 독성을 지니고 있다. 제초제 RR의 설명서에는 이 제초제는 즉각적으로 땅에 반응하지 않고, 다음 경작 시기까지 남아있지 않으며, 결코 작물의 뿌리에 침투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과 아주 다르다. 실제로 RR에 함유된 글리포사토는 매우 빨리 땅에 용해되는데, 그 용해되는 양도 아주 많아 2시간만에 살포되는 양의 약 80%가 용해되었다고 한다. 미국의 환경보호청(EPA)은 글리포사토는 다음 해까지 지속되어 살포한 토지에서 잔존물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글리포사토는 저장된 물에서는 12~60일 동안, 특히 바닥의 침전물에서는 120일 동안 잔존한다. 따라서 콩 경작지에서 뿌려진 글리포사토는 주변에 하천 물에 잘 용해되어 오랫동안 독성을 유지하면서 흘러 다니며, 하천 주변에 사는 토지, 동식물 그리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글리포사토 외에 사용되는 다른 농약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베트남 전쟁 전에 사용되어 이미 파괴력을 인정받은 2,4D와 혼합되어 사용되는 제초제 토르돈(Tordon, 일명 2,4,5-T)도 매우 위험한 제초제이다. 또한 콩 경작지에서 종종 살포되는 제충제 미렉스(mirex, dodecacloro)는 독성이 강한 유기성 오염물로 아주 먼 거리까지 이동하며 오랫동안 독성을 유지하여 사람, 동식물에게 치명적이다(Bioptimistas

2005, 2 참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두 대농장주들은 콩을 경작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농장을 확대하고자 농민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 농민과 원주민의 거주지, 학교 등 공공건물의 주변까지 경작지를 확대한 대농장주들은 무차별적으로 농약을 살포한다. 농약은 땅과 하천을 오염시키고, 결국은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평상시에 농약에 노출되어 있는 콩 재배지역의 농민과 거주민들이 피부병을 앓는 것은 보통 일이다. 예로 파라과이의 대표적인 콩 재배지인 이따뿌아(Itapúa)주의 약 300가족들은 이 지역의 일본인과 독일인 소유의 대두 대농장에서 뿌려진 몬산토 산 농약으로 말미암아 피부병 등의 심각한 병들을 앓고 있다. 실비오 딸라베라처럼 일부는 농약중독으로 생명을 잃었다. 또한 생계작물, 가축 등에게도 심각한 병을 야기하여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콩 경작지의 확대로 말미암아 오랜 세월동안 형성되어 온 전통 경작방식과 종자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몬산토가 생산하고 있는 제초제 라운드업과 같은 특정의 농약에 의해서 생산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험실에서 유전자 조작된 콩이 파라과이의 들판을 파랗게 물들일수록 전통의 생계작물과 종자는 자취를 감추고 있다. 세계에서 재배되고 있는 55%(2003년 기준)가 다국적 종자기업이 생산하는 유전자 조작된 콩이고, 파라과이에 재배되고 있는 콩 85%가 몬산토에서 생산하는 종자이다. 이처럼 현재 소수 외국인 대농장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서 경작되고 있는 콩은 철저하게 몬산토, 아벤티스(Aventis) 등의 다국적 종자 기업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그로 말미암아 농촌 나아가 파라과이는 외국인 대농장주 나아가 몬산토라는 거대 다국적 기업에 의한 대외종속성이 심화되었다. 한마디로 종자와 농약의 종속에서 비롯된 대

외 종속성은 파라과이 정치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제 대두 농장주들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다국적 기업이 대량생산하는 종자, 농약, 농기계 등을 사용한다. 콩이 점점 파라라이 농촌을 점령해가고 있지만, 철저하게 다국적 기업이 생산한 종자, 농약, 기계 등으로 움직이는 대두 대농장은 농민들에게 어떤 일자리도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농민들로부터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은 외국인 대농장주와 다국적 기업에게 돌아가고, 결국 모두 외국의 은행으로 들어가 파라과이 밖으로 나가고 있다. 파라과이에 남은 것은 오직 오염된 땅과 물 뿐이다.

이제는 세계적인 콩의 생산기지로 변한 파라과이 농촌에서 산다는 것은 하늘, 하천 그리고 땅을 오염시키고 있는 농약과 함께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생활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많은 농민과 원주민들은 자신들을 땅을 대농장주에게 헐값을 넘기고 농촌을 떠나고 있다. 결국 농민들은 농촌에서 빈곤 상태에 빠져있거나, 자신의 터전을 떠나 도시 빈민으로 편입되고 있다. 대두 생산기지화에 따른 농촌의 피폐는 단지 파라과이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많은 국가들에서 파리과이와 같은 동일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파라과이와 더불어 세계 대두 시장을 분할하고 있는 이웃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도 콩 재배지의 확대로 말미암아 농민들이 파라과이 농민들과 같은 고통을 받고 있다.

Ⅳ. 콩 전쟁의 전개과정과 농민운동

콩 재배는 농촌 사회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농민들이 신체적 위험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식량주권을 상실함으로써 농민사회

자체가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 속에서 농민들의 저항도 점차 거세지고 조직화되고 있다. 저항의 방향은 지역마다 조직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 콩 전쟁의 약사

팔라우와 크레츠머(Palau y Kretschmer 2004, 107)는 대농장주의 권력에 대한 농민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이촌(離村)과 같은 수동적 반응(la aceptación pasiva del desalojo)으로 대농장주의 횡포를 피해 자신의 토지를 팔고 농촌을 떠나는 것이다. 저항의 무기가 많지 않은 농민들 대부분은 어쩔 수없이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등져야 했다. 둘째는 제도적 투쟁(la institucional)으로 사회운동단체, 교회 등과 연계하여 대농장주의 불법적 점유와 무차별적 농약 살포에 대하여 국가와 사법기관에 소송하는 것이다. 이는 2003년에 있었던 실비오 딸라베라 사망과 관련된 소송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직접적 행동(la acción directa)으로 대농장의 농약살포를 막고자 트랙터, 농약살포용 기계 등이 지나가는 길을 가로 막고, 추수를 앞둔 콩을 불태우는 등의 직접적인 저항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저항들은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농민들의 저항이 매우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였다. 어떤 지역은 상대적으로 조직적인 저항을 하기도 하여 '콩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regiones libres/libradas de soja)'((Palau y Kretschmer 2004, 112)이라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농민들의 투쟁은 점차 조직화되고, 또한 단순한 콩의 문제가 아닌 삶과 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로 나아갔다. 이는 수많은 희생이 따르는 '콩 전쟁'이 낳은 결과였다.

2003년 1월 8일, 파라과이 콩 생산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인 이따뿌아

(Itapuá) 주에 살고 있는 뻬뜨로나 딸라베라(Petrona Talavera)의 11살 난 아들 실비오 딸라베라(Silvio Talavera)가 공중 살포된 농약에 중독되어 죽었다. 그리고 다른 가족의 7명의 아이들도 병원에 입원하였다. 실비오 딸라베라의 사망은 파라과이 농촌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 뻬뜨로나 가족은 삐라뻬오 35(Pirapey 35) 마을에서 농사와 가축을 키우며 24년 동안 살았다. 그녀에게는 12명의 자녀가 있었다. 이 지역에서도 대두 경작이 본격화되면서 외국인 대두 경작지가 뻬뜨로나 집 주변을 둘러쌓다. 집에 오는 길도 마찬가지여서 콩 경작지를 지나야만 집에 드나들 수 있었다. 사망하기 5일전 실비오는 자전거를 타고 점심에 먹을 고기와 국수를 사러 갔다가 돌아왔다. 실비오의 불행은 여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실비오가 돌아올 때 마침 브라질 농장주 헤르만 셀린더(Herman Schelender)가 자신의 경작지에서 몬산토 산 제초제 라운드업을 살포하고 있었다. 헤르만은 실비오가 앞을 지나갈 무렵 실비오를 향해 농약을 살포하였다. 뻬뜨로나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모른 채 실비오가 가져 온 재료로 음식을 하였다. 제초제에 흠뻑 젖은 음식을 먹은 가족 모두는 한 시간 후 심한 구역질, 구토, 두통에 시달렸다. 특히 직접적으로 농약 세례를 받았던 실비오의 상태는 더욱 좋지 않았다. 실비오는 이따뿌아에는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엔카르나시온(Encarnación)까지 가서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행히 1월 6일 실비오는 상태가 호전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불행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농약살포를 자제해달라는 뻬뜨로나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브라질 농장주 알프레도 로스텐레이저(Alfredo Laustenlager)가 뻬뜨로나 집으로부터 불과 15m 떨어진 콩 경작지에서 농약 살포를 하였다. 농약은 바람에 실려 뻬뜨로나 집을 엄습하였다. 결국 실비오는 다시 농약으로 말미암아 쓰러졌고, 이번에는 회복하지 못하고 1월 8일 숨을 거두었다. 그 외 농약으로 피해를 입은 뻬뜨로나 가족 일부와 마을 사람 20여명은 아순시온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다. 실비오가 죽은 후, 대농장주들의 온갖 회유와 협박을 물리치고 뻬뜨로나는 소송을 제기하

> 였다. 사실 파라과이에서 한 농민이 대농장주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법정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고, 무엇보다도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다. 그리고 대농장주를 상대로 승리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었다. 그래도 그녀는 소송을 택했다. 그녀의 선택에는 자신이 몇 년 전부터 참여해왔던 전국여성농민과원주민연합(Coordinadora Nacional de Mujeres Campesinas Rurales e Indígena, 이하 CONAMURI)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녀는 파라과이의 한 농촌 여성에게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실비오가 죽은 1년이 지난 2004년 4월 12일 엔까르나시온 법정은 농약을 살포하였던 로스텐레이저와 셀린더에게 각각 징역형 2년과 보상금 25백만 과라니(guaraní)를 판결하였다. 그러나 두 브라질 농장주는 항소를 하였고, 결국 무죄로 풀려났다(Zibechi 2005, 1 참조).

실비오가 농약 살포에 따른 첫 사망자는 아니었다.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대농장주들의 회유와 협박, 비용의 부족과 소송에 대한 자신감 결여 등으로 소송을 할 수 없었다. 이런 현실에서 실비오의 죽음은 콩 경작지 확대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와 열악한 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나아가 농민들의 저항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삐뜨로나의 소송을 지원하였던 CONAMURI는 농민 가족들의 농약 중독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의 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농촌 현실을 알리고 공론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재판 등의 제도적 투쟁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항의집회를 이끌었다. 이들은 농민들의 삶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 백 년 동안 지속되어 온 파라과이의 농업 수출모델의 포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삶과 정의에 대한 이들의 문제제기는 토론회 등을 통해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커다란 호응을 이끌어내어, 파라과이의 다양한 시민단체과 교회 등이 이들의 운동에 동참하였다. CONAMURI의 적극적 활동덕분에 콩 생산을 위한 농약의 대

량 살포가 농민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국민적 공감대가 전국규모의 사회 운동으로 수렴되는 데에는 더욱더 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농약 살포로 말미암은 농민들의 불행은 베뜨로나의 가족이 살고 있는 이따뿌아 마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대두 농장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농약 살포에 따른 환경오염과 동식물 그리고 사람의 피해가 뒤따랐다. 2003년 2월 26일에는 알또 빠라나(Alto Paraná) 주의 후안 올레리(Juan E. O'Leary) 지역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였다. 이는 브라질 대농장주들이 살포한 농약과 농장에서 사용한 농기계들을 하천에서 씻으면서 하천이 오염되었기 때문이었다. 2003년 6월 6일에는 알또 빠라나(Alto Paraná) 주의 밍가 뽀라(Minga Pora) 지역에서 콩을 재배하는 세다&피브라스 기업(La Empresa Seda y Fibras)은 자신들이 농약을 공중 살포하여 수백 명의 농민이 농약에 중독되었다고 발표하였다.

2003년 12월 1일에는 이따뿌아주의 산 베드로 델 빠라나(San Pedro del Paraná) 지역의 농촌 마을들에서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가축들이 죽고 그리고 어린아이 한 명이 죽었다. 이는 인근에 위치한 대농장에서 살충제 마따유요스(matayuyos)를 대량으로 살포한 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며칠 후에 이따뿌아 주는 농약 중독으로 말미암아 비상사태에 빠졌다. 특히 이 지역의 일본인과 독일인이 소유한 2개의 대농장에서 대량으로 살포된 몬산토 산 글리포사토와 빠라콰트(paraquat) 농약의 대량 살포로 약 300 농민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9살 난 아이가 사망하였고, 7명은 위통과 구토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였다. 지방정부는 이는 농약 중독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농약 살포 등으로 오염된 집 주변의 하천에서 수영 등을 한 어린이들의 피해가 컸다. 주민들

의 오줌과 수돗물의 검사에서도 글리포사또와 유독탄산염(carbonatos toxicos)이 검출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거주지의 주변 100m 이내의 하천 지역에서 농약을 공중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대두 재배면적의 확대에 따른 농촌과 농민들의 피해는 거주지 주변에서 농약을 공중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소극적 대응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과정에서 농민과 대두 농장주에 간에 갈등도 점차 심화되었다.

이는 2004년 1월 21일 까아과수(Caagauzú) 주의 으뻬꾸아(Ypekúa) 마을에 있었던 농민 학살로 절정에 이르렀다. 1월 20일 농민들은 무장을 하고 지역에 위치한 70헥타르에 이르는 대두 농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농약의 공중살포를 막고자 생태·농촌경찰(APER, Agrupación de policías Ecológical y Rural)에게 총을 발사하였다. 다음날 농약의 공중살포를 반대하는 집회를 참여하고자 트럭을 타고 가던 50여명의 농민들에게 생태·농촌경찰들이 M-16으로 총격을 가하였다. 이 자리에서 2명의 농민이 사망하였고, 수 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40명 이상이 경찰이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당하였다. 2월에는 수 백 명의 농민들이 농약을 살포하러 가던 트랙터를 저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콩 경작지에서 불이 났다.

또한 까이과수 주의 엔까르나시온(Encarnación) 지역에서는 대두 농장에서 살포한 농약으로 하천이 오염되어 많은 아이들이 피부병, 위통, 어지럼증, 구토 등으로 시달렸고, 하천의 물고기와 가축들이 죽었다. 또한 2003년 2월 13일에는 알또 빠라나 주의 마리아 아욱실리아도라(María Auxiliadora)에서는 하천 오염으로 모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였고, 하천의 물을 마신 가축들도 죽었다. 물론 주변의 80여 가구의 가족들도 피부병, 구토 등 심한 고통을 당하였다.

이처럼 수백 개의 하천으로 연결된 동남부 지역에서 하천의 농약 오

염에 따른 피해가 한 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농민들은 경작지에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대량으로 살포되고 있는 제초제 2,4 D와 살충제 빠라꽈트(Paraguat)의 사용을 금지해줄 것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농민들은 대두 경작지를 태우는 등 직접적 행동으로 자신들의 분노를 분출하였다. 2004년 2월 27일에는 과이라(Guairá)주의 빠소 조바이(Paso Yobai) 지역에서는 10여명의 농민이 주변에 위치한 대두 경작지 14헥타르 가운데 5 헥타르를 훼손하였다. 그리고 2월 29일에는 까닌데주 주의 라 빨로마(La Paloma) 지역에 위치한 대두경작지 10헥타르와 까아과수 주의 로뻬스(López) 지역의 대두 경작지 10 헥타르가 농민들에 의해 불태워졌다. 또한 3월 3일에는 까아과수 주의 산 아구스띤(San Agustín)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수확을 앞 둔 대두 경작지 4헥타르의 콩을 낫(machete)으로 잘라버렸다.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콩 전쟁이 본격화되었고, 최근까지도 콩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08년 7월 15일 파라과이 독립기념일에는 수도 아순시온에서 북쪽으로 350㎞ 떨어진 꾸루빠이띠 지역에서 브라질 국기가 시위대에 의해 불태워졌고, 산뻬드로주 등에서 브라질인이 운영하는 농장 여러 곳이 빈농단체 회원들에 의해 점거당하였다. 또한 8월에는 1천여명의 파라과이 빈농들은 콘셉시온주(州) 내에 위치한 브라질인 소유 4개 농장을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다(www.deleste.net, 파라과이뉴스2008.6.4.).

2. 콩 전쟁의 진화

콩이 파라과이 농촌을 장악하면 할수록 농민들의 피해는 커져갔고, 이와 비례하여 농민들의 저항도 거세졌다. 이제는 대두 농장주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조용히 농촌을 떠나기보다는 저항의 대열이 참여하는 농민들

이 늘어났다. 그러나 농민들의 저항은 매우 산발적이었고 제한적이었다. 또한 저항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들이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서로가 소통하고 결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빼꾸아 농민학살을 계기로 농민들의 저항은 점차 전국적으로 조직화되고 농촌 문제를 넘어 파라과이 나아가 세계화의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로 나아갔다.

2004년 3월 16일 콩 전쟁을 이끌어오던 전국농민조직연합(MCNOC, Mesa Coordinadora Nacional de Organizaciones Campesinas)[5], 상설민중회의(PPP, Plenaria Popular Permanente)[6], 전국농민연맹(Federación Nacional Campesina, FNC)[7] 등은 '생존과 국가 주권을 위한'(Por la Vida y la Soberanía Nacional) 전국적인 투쟁을 제안하였다. 이 날 80km에 이르는 행진, 도로 점거 등이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농민조직 외에 민중조직, 교회, 좌파 정당, 지역정부 등이 참여하였다. 그러면서 '콩 전쟁'의 전선은 차츰 농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농민들은 단순히 농약의 무절제한 사용과 대농장주들의 토지침탈뿐만 아니라 정부의 농업수출주도형 발전 전략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마디로 정부와 다국적기업들은 콩을 농촌과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inversión)라고 말하였지만, 농민들에게 콩은 삶과 터전을 파괴하는 침략자(invasor)에 불과하였다. 이제 투쟁의 전선도 외국 대농장주를 넘어 IMF 신자유주의 정책의 충실한 수행자로 변한 니까노르 두아르떼 프루또스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옮겨갔다. 이들의 주장도 점차 콩으로부터

5) 전국농민조직연합은 전국 17개 주 가운데 14 주에서 주연합회(Mesa Coordinadora Departamental)가 구성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농민조직으로, 소농, 무토지농민, 여성, 청년 조직 등을 다 포함한다.

6) 농민, 노동자, barriales, 청년 조직 등 시민조직과 좌파 정치 조직의 연합체로 2002년에 결성되었다.

7) 전국농민연맹(FNC)은 공공재산수호전선(el Frente por la Defensa de los Bienes Públicos)의 하위조직이다.

의 자유를 넘어 식량, 토지, 국가 주권의 회복을 통한 새로운 사회의 건설로 나아갔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제약이 너무도 많다. 이 점은 콩 전쟁을 수행하는 조직들의 관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콩 전쟁과 관련하여 각 운동단체들은 서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콩 전쟁의 가장 중심에 서 있었던 MCNOC, FNC 등과 같은 주요 조직들 사이에서도 문제 인식과 해결방안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물론 콩이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살아왔던 소규모 농민들을 토지로부터 내쫓고, 또한 생활환경을 오염시켜 궁극적으로 농민들의 삶과 농촌 사회를 파괴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수출정책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서로가 어느 정도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렇지만 운동의 전개양식과 해결방안에서는 서로 의견이 달라고, 그 차이도 매우 컸다.

MCNOC은 농업수출모델과 신자유주의의 맥락에서 콩 문제를 진단하였다. 이들에게 콩은 파라과이 농민과 국민보다는 소수의 다국적 기업을 위한 것으로 파라과이 농민과 국민의 삶을 황폐화하는 하나의 침략자일 뿐이었다. 따라서 농업수출모델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콩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FNC는 전국의 콩 생산기지화(la sojización del país)와 농약의 무차별적 다량 살포에 반대하면서, 지속적으로 목화 산업화와 공공은행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과 정치의 개혁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콩 전쟁을 이끌고 있는 주요 조직들 사이에 문제의 진단과 해결 방향에서 차이가 있다. 농민조직들은 기본적으로 단합하지 못하고 각 조직들은 독자적으로 저항의 방식을 찾았다. 물론 MCNOC과 CONAMURI의 주도 아래 시민단체, 지역정부, 기독교 등이 연대를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대의 길은 멀다. 예로 콩 전쟁의 또 다른 주체였던 FNC는 연대에서 한 발자국 물러서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2002년 토지 사유화에 대하에 대항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중의 민주의회(Congreso Democrático del Pueblo)'는 유명무실화되었다. 그렇지만 콩 전쟁의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농촌에서 시작된 콩 전쟁은 전국을 강타하며 결국 2008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끌어내며 콩으로부터의 자유를 꿈꾸고 있다.

3. 토지의 회복과 콩으로부터의 자유

농민들의 저항은 우선 콩 재배지 확대를 위한 대두 농장주들의 무차별적인 토지 침탈에 맞서 자신의 땅을 수호하고 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주어졌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농민들은 법, 중앙(지방)정부에 대한 소송 또는 항의 등을 통해 대농장주들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기도 하고, 또한 농약을 살포하러 가는 농기계와 사람의 길목을 막거나, 추수를 앞 둔 콩을 불태우며 저항을 하였다.

그러나 이런 저항은 땅과 생활터전의 회복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는 못했다. 오히려 농민들의 피해만 늘어났다. 예로 1989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자신의 토지를 지키고자 싸웠던 농민들 가운데 90여 명이 사망하였고, 약 1,500명이 불법행위(?)로 수감되었다(Zibechi 2005, 3). 자신의 땅을 지키고자 하는 파라과이 농민들의 사회 저항은 불법으로 간주되는 반면에, 농장주들이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 사병을 고용하고 농민들을 공격하는 행위는 크게 제지를 받지 않고 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콩으로부터의 자유는 단순히 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콩'은 파라과이 겪고 있는 정치경제, 사회문화적 위기,

이른바 식량주권·경제주권·토지주권의 상실 그리고 파라과이 문화의 중심인 농촌공동체의 해체 등을 함의하고 있다. 특히 소수의 외국인, 특히 약 10만명의 브라질 출신의 대두 대농장주들의 손에 있는 토지주권을 회복하지 않는 한, 대농장주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은 쉽게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콩으로부터의 자유도 결코 이룰 수 없다.

이런 과정에서 점차 외국인 대농장주들을 추방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다시 말해 파라과이 농토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외국인 대농장주들의 추방을 통해 잃어버린 땅의 주권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이 꿈은 2008년 4월 20일 실시된 대선에서 빈곤층과 농민, 진보세력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페르난도 루고(Fernando Lugo) 후보가 콜로라도당의 61년 장기집권을 종식시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현실화되는 것 같았다. 농민들은 브라질 대농장주를 중심으로 한 대두 농장주들의 지배와 횡포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리고 루고는 2008년 8월 15일에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농민들의 꿈은 먼 것 같다.

> 가톨릭 사제 시절에 해방신학에 심취했던 루고 대통령은 우고 차베스(Hugo Chavez)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21세기형 사회주의 건설'이나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볼리비아 대통령 및 라파엘 꼬레아(Rafael Corea) 에콰도르 대통령의 '사회주의 개혁'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집권한 뒤에는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위해 시장경제 원칙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차베스, 모랄레스, 꼬레아 등 남미 좌파 3인방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루고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전환은 '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있어 농민, 빈농단체나 진보세력과 마냥 행보를 같이 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예로 루고 대통령은 파라과이 내에 대규모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브라질 사람들에 대한 추방 등

에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아시아투데이, 2008.11.23일자 참조).

루고 정부는 커다란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처음으로 가난을 야기하고 여기서 이익을 취하던 과거 정부들이 만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다. 그러나 루고의 정권교체는 정치를 안정화시키고, 신뢰할 수 있게 하며, 유효하게 하는 데 토대가 되는 사회·경제적 안정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취약한 민주주의 이행과정 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가난과 부패, 불평등이 증가하면 민주주의도 달성될 수 없다(로드리게스 2009, 361~362). 이처럼 사회·경제적 변화는 루고 정권 나아가 파라과이 농민과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 "루고는 정당체제 내에서 아웃사이더이다. 기존 정당체제가 루고의 선거 승리를 허락했지만, 필요한 변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통치를 허락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로드리게스(2009, 362)의 지적처럼, 의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무능하고 부패한 기존 정치세력,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기업형 농·축산업자들의 반대와 저항이 만만치 않다. 또한 불공평한 토지분배와 대지주의 횡포로 희망을 상실하고 생존의 극한 상황으로 내몰린 농민들의 개혁의 요구도 거세기만 하다. 이런 긴박하고 해결점이 잘 보이지 않는 갈등의 한 복판에 콩 문제가 놓여있다고 하겠다.

루고 정부가 브라질 출신, 이른바 브라지과요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두 농장주를 추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파라과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무엇보다 삼국동맹전쟁의 패배이후 정치경제 측면에서 상당부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종속되어 있는 편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도 삼국동맹전쟁이 낳은 피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라과이 정부가 브라질 등

의 외국 출신 대농장주들을 추방하는 '개혁'을 쉽게 추진할 수 없다. 나아가 삼국동맹전쟁 때, 삼국의 뒤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빼앗아갈 수 있는 파라과이의 경제적 독립과 자주주권을 용납하지 않았던 영국처럼, 오늘날 파라과이의 정치, 특히 경제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는 IMF, 다국적 기업, 이른바 선진국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틀을 허물어버릴 수 있는 나쁜 선례를 파라과이에서 결코 남기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한마디로 파라과이가 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세계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기본조건인 땅 주권의 회복은 매우 험난한 과정에 있다고 하겠다.

Ⅴ. 나가며

파라과이의 콩 전쟁은 생계작물의 상품화와 단작화가 얼마나 쉽게 농촌사회를 파괴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파라과이에서 콩은 1990년대 이후 가장 중요한 농업 수출품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콩은 파라과이 농촌을 발전시키고 농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농촌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특히 외국 자본에 의한 대규모 콩 재배가 활성화되면서 파라과이 농촌의 비옥한 토지뿐만 아니라 산림지대, 농민과 원주민 거주지도 점차 대두 경작지로 전환되고 있다. 낮은 생산 비용과 환경에 대한 낮은 규제를 이용하고자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외국 자본들, 특히 '브라지과요'라고 불리는 브라질 대농장주들이 농촌의 토지들을 콩 재배지로 편입시키면서 토지 주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파라과이에서 가장 비옥한 토지들에서 콩의 단작화가 확산되면서 개량종자와 농약 등이 자리를 잡고, 이것들은 몬산토 등과 같은 다국적 종자회사에 독점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어 온

지역의 독특한 종의 다양성과 생계농업이 파괴되어 식량 주권을 상실하고 있다. 나아가 농촌 마을은 대두 대농장들에서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는 농약으로 말미암아 하천, 땅 그리고 하늘이 오염되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다.

파라과이 농촌의 콩 생산기지화가 심화될수록 농민들의 저항도 거세졌다. 특히 으뻬꾸아 농민학살을 계기로 농민들의 저항은 점차 전국적으로 조직화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도 단순히 대농장주들의 토지침탈과 농약의 무절제한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들은 점차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농업수출주도형 발전 전략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식량, 토지, 국가 주권의 회복을 통한 새로운 사회의 건설로 나아갔다. 그러나 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식량, 토지 주권의 회복은 여전히 멀고 험난한 과정에 있다. 물론 불가능할 것 같은 정권교체가 2008년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콩으로부터 자유 및 땅 주권을 회복하는 날이 결코 멀리만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석영(1999), 『라틴아메리카사(하)』,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강혜정(2005), 「파라과이 농업개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구경모(2008), 「파라과이 '과이레뇨'의 종족성」,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세건(2008), 「새로운 시장 그리고 농민공동체 운동: 멕시코 UCIRI를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 10권 1호, pp.87-124.

다미안 아라셀리(Damián Araceli) · 홀리오 볼트비닉(Julio Boltvinik)(2008), "식탁-라틴아메리카 빈곤 계측의 의미", 에릭 허쉬버그 · 프레드 로

젠 외, 김종돈 · 강혜정 역, 『신자유주의 이후의 라틴아메리카』, 모티브북, pp.202-233.

로드리게스, 호세 까를로스(2009), "파라과이, 페르난도 루고와 변화의 난제: 페르난도 루고의 희망과 어려움", 뉴에바 소시에다드(Nueva Sociedad) 편, 『2009 라틴아메리카: 변화하는 지정학』, 서울대라틴아메리카연구소, pp.349-363.

Bioptimistas(2005), "Guerra solapada en Paraguay: la soja transgénica" http://uruguay.indymedia.org/news/2005/04/34090.php. pp.1-6.

Fogel, Ramón(2005), "Efectos socioambientales del enclave sojero", en Fogel, Ramón y Marcial Riquelme, *Enclave sojero, merma de soberanía y pobreza,* Centro de Estudios Rurales Interdiscipinarios, pp.35-112.

Palau Viladesau, Tomás(2005), "El movimiento campesino en el Paraguay: conflictos, planteamientos y desafíos", *OSAL* 16, pp.35-46.

Palau, Mariella y Regina Kretschmer(2004), "La "guerra de la Soja" y el avance del neoliberalismo en el campo paraguayo", *OSAL* 13, pp. 105-115.

Riquelme, Marcial(2005), "Notas para el estudio de las causas y efectos de las migraciones brasileñas en el Paraguay", en Fogel, Ramón y Marcial Riquelme, *Enclave sojero, merma de soberanía y pobreza,* Centro de Estudios Rurales Interdiscipinarios, pp.113-148.

Riquelme, Quintín(2003), *Los sin tierra en Paraguay : Conflictos agrarios y movimientos campesino*, Buenos Aires: CLACSO.

Zibechi, Raúl(2005), "La guerra de la soja en Paraguay: el napalm de Monsanto", http://www.rebelion.org/noticia.php., pp.1-3.

Souchaud, Sylvain(2005), "Dinámica de la agricultura de exportación

paraguaya y el complejo de la soja: una organización del territorio al estilo brasileño", en Fogel, Ramón y Marcial Riquelme, *Enclave sojero, merma de soberanía y pobreza*, Centro de Estudios Rurales Interdiscipinarios, pp.15-34.

▌논문투고일자: 2010년 4월 29일
▌심사완료일자: 2010년 6월 14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6월 22일